

2024학년도

꿈·사랑·감동이 살아있는 행복한 학교

학교교육과정 설명회 및 학부모 연수 자료

2024. 3. 27. (수)



김 제 초 등 학 교
<http://www.kimje.es.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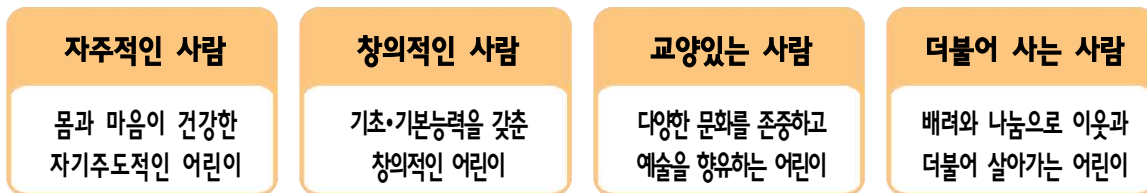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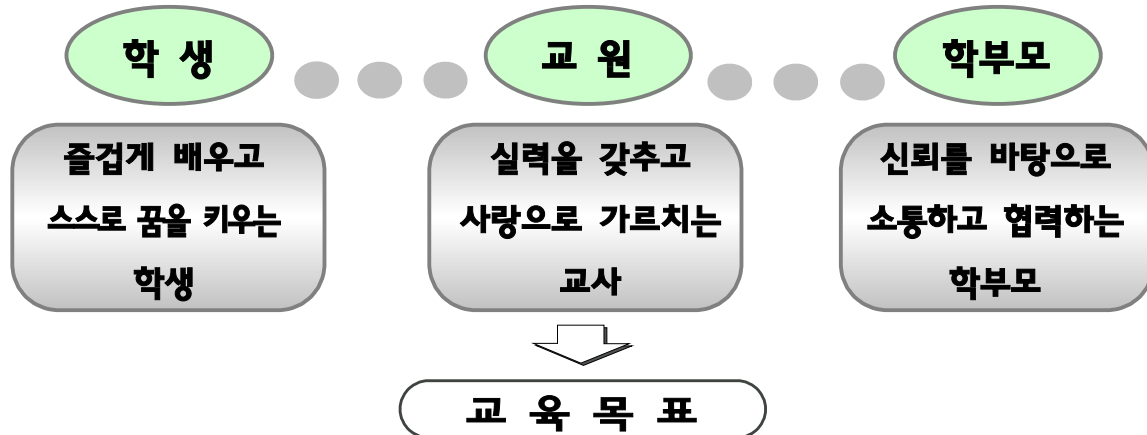
순 서

• 2024. 우리학교 교육의 기본 방향	1
• 2024. 주요학사일정	2
• 학부모 연수	
▶ 성폭력(디지털 성폭력) 예방 교육	4
▶ 양성평등교육	5
▶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6
▶ 감염병 예방 교육	7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요령	8
▶ 생명존중 및 자살 예방, 정신 건강 증진	9
▶ 가정폭력 예방 교육	13
▶ 아동학대 예방 교육	14
▶ 학교폭력 예방교육	16
▶ 인권교육	18
▶ 인성교육	19
▶ 교통안전교육	20
▶ 초등 학생평가	21
▶ 기초학력 향상 지원	22
▶ 공교육 정상화법 안내	23
▶ 교육활동 보호 연수	24
▶ 청탁금지법 안내	26
▶ 2024학년도 학교 및 교실 전화	28

2024. 우리학교 교육의 기본 방향

꿈·사랑·감동이 살아있는 행복한 학교

밝은 미래를 꿈꾸고, 온 세상을 사랑하며, 삶과 삶을 하나로 만드는
감동이 살아있는 김제초 행복공동체



2024. 학년별 시간 운영

1학년	
08:40~08:50	등교 및 아침활동
09:00~09:40	1교시
09:50~10:30	2교시
10:40~11:20	3~4교시
11:20~12:00	볼록수업
12:00~12:40	점심시간
12:40~13:20	5교시
* 월, 화, 금 (5교시) / 수, 목 (4교시)	

2학년	
08:40~08:50	등교 및 아침활동
09:00~09:40	1교시
09:50~10:30	2교시
10:40~11:20	3~4교시
11:20~12:00	볼록수업
12:00~12:40	점심시간
12:40~13:20	5교시
* 4월까지: 월, 화, 목, 금 (5교시) / 수 (4교시)	
* 5월부터: 월, 화, 금 (5교시) / 수, 목 (4교시)	

3학년	
08:40~08:50	등교 및 아침활동
09:00~09:40	1교시
09:50~10:30	2교시
10:40~11:20	3교시
11:30~12:10	4교시
12:10~13:00	점심시간
13:00~13:40	5교시
13:50~14:30	6교시
* 월, 수, 목, 금 (5교시) / 화 (6교시)	

4학년	
08:40~08:50	등교 및 아침활동
09:00~09:40	1교시
09:50~10:30	2교시
10:40~11:20	3교시
11:30~12:10	4교시
12:10~13:00	점심시간
13:00~13:40	5교시
13:50~14:30	6교시
* 월, 수, 목, 금 (5교시) / 화 (6교시)	

5학년	
08:40~08:50	등교 및 아침활동
09:00~09:40	1교시
09:50~10:30	2교시
10:40~11:20	3교시
11:30~12:10	4교시
12:10~13:00	점심시간
13:00~13:40	5교시
13:50~14:30	6교시
* 월, 화, 목, 금 (6교시) / 수 (5교시)	

6학년	
08:40~08:50	등교 및 아침활동
09:00~09:40	1교시
09:50~10:30	2교시
10:40~11:20	3교시
11:30~12:10	4교시
12:10~13:00	점심시간
13:00~13:40	5교시
13:50~14:30	6교시
* 월, 화, 목, 금 (6교시) / 수 (5교시)	

2024학년도 주요 학사 일정

[1학기 : 2024.3.1. ~ 8.18]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1	금	삼일절	1	월		1	수	재량휴업일	1	토	
2	토		2	화		2	목		2	일	
3	일		3	수		3	금	한마음 체육대회	3	월	
4	월	시업식 입학식	4	목		4	토		4	화	
5	화		5	금		5	일		5	수	
6	수	재난대비훈련	6	토		6	월	대체공휴일	6	목	현충일
7	목		7	일		7	화	상당주간	7	금	재량휴업일
8	금		8	월	신체발달검사주간 과학행사주간	8	수		8	토	
9	토		9	화		9	목		9	일	
10	일		10	수	22대국회의원선거	10	금		10	월	
11	월		11	목		11	토		11	화	
12	화		12	금		12	일		12	수	학부모 수업 공개의 날
13	수		13	토		13	월		13	목	
14	목		14	일		14	화		14	금	
15	금		15	월	1학기 정예인식 개선교육주간	15	수	부처님오신날	15	토	
16	토		16	화		16	목		16	일	
17	일		17	수		17	금		17	월	친구사랑주간
18	월		18	목		18	토		18	화	
19	화		19	금		19	일		19	수	
20	수		20	토		20	월	흡연 및 마약예방 교육주간	20	목	
21	목		21	일		21	화		21	금	
22	금		22	월	수학여행(6학년)	22	수	재난대응훈련	22	토	
23	토		23	화	수학여행(6학년) 현장체험학습 (2,3,4,5학년)	23	목		23	일	
24	일		24	수		24	금		24	월	
25	월		25	목	현장체험학습 (1학년)	25	토		25	화	
26	화		26	금		26	일		26	수	
27	수	교육과정 설명회	27	토		27	월	성폭력예방교육주 간	27	목	
28	목		28	일		28	화		28	금	
29	금		29	월		29	수		29	토	
30	토		30	화		30	목		30	일	
31	일					31	금		31	수	
수업일	20			21			20			18	
										21	
											10

[2학기 : 2024.8.19. ~ 2025.2.28.]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1 일		1 화		1 금		1 일		1 수 신정		1 토	겨울방학
2 월	생존수영(3-1)	2 수		2 토		2 월		2 목		2 일	
3 화	생존수영(3-1)	3 목	개천절	3 일		3 화		3 금		3 월	
4 수	생존수영(3-1)	4 금	개교기념일	4 월	성산골 예술주간	4 수		4 토		4 화	
5 목		5 토		5 화		5 목		5 일		5 수	
6 금		6 일		6 수		6 금		6 월		6 목	
7 토		7 월		7 목		7 토		7 화		7 금	
8 일		8 화	현장체험학습 (1~6학년)	8 금		8 일		8 수		8 토	
9 월	생존수영(3-2)	9 수	한글날	9 토		9 월		9 목		9 일	
10 화	생존수영(3-2)	10 목		10 일		10 화	전교학생회 선거	10 금		10 월	
11 수	생존수영(3-2)	11 금		11 월	2학기 장애인식 개선교육주간	11 수		11 토		11 화	
12 목		12 토		12 화		12 목		12 일		12 수	
13 금		13 일		13 수	안전한국훈련	13 금		13 월		13 목	
14 토		14 월	독서행사주간	14 목		14 토		14 화	겨울방학	14 금	
15 일		15 화		15 금		15 일		15 수		15 토	
16 월	추석연휴	16 수		16 토		16 월		16 목		16 일	
17 화	추석	17 목	5학년 안전체험	17 일		17 화		17 금		17 월	
18 수	추석연휴	18 금		18 월		18 수		18 토		18 화	
19 목		19 토		19 화		19 목		19 일		19 수	
20 금		20 일		20 수		20 금		20 월		20 목	
21 토		21 월	애플데이주간	21 목		21 토		21 화		21 금	
22 일		22 화	2학년 안전체험	22 금		22 일		22 수		22 토	
23 월	생존수영(4-1)	23 수	교직원 심폐소 생술 연수	23 토		23 월		23 목		23 일	
24 화	생존수영(4-1)	24 목		24 일		24 화		24 금		24 월	
25 수	생존수영(4-1)	25 금		25 월		25 수	성탄절	25 토		25 화	
26 목	생존수영(4-2)	26 토		26 화		26 목		26 일		26 수	
27 금	생존수영(4-2)	27 일		27 수		27 금		27 월		27 목	
28 토		28 월		28 목		28 토		28 화		28 금	2학기 종료일
29 일		29 화		29 금		29 일		29 수 설날			
30 월	생존수영(4-2)	30 수		30 토		30 월		30 목			
		31 목				31 화	종·졸업식	31 금	겨울방학		
수업일	18		20		21		21		0		0
※ 수업일수 : 1학기 100일, 2학기 90일 계:190일											

※ 위 학사일정 및 교육 내용은 학교 및 국가, 사회적 사정(임시공휴일 지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디지털 성폭력) 예방 교육

디지털 성폭력이란 카메라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상대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여 유포 협박, 유포 및 유통하거나 이를 저장, 전시하는 행위 및 사이버공간, 미디어, SNS 등에서 성적으로 괴롭히는 것을 의미합니다.

1

나와 타인에 대한 개인정보를 올리거나 전송하지 않습니다!

- ✓ 주민번호, 사진 등의 **개인정보**는 범죄에 악용될 수 있습니다
- ✓ 타인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올리거나 전송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개인정보 예시 : 이름, 나이, 성별, 사진, 주민번호, 휴대폰 번호, 학교명, 교복 등

2

잘 모르는 사람이 보낸 인터넷 링크나 파일을 클릭하지 않습니다!

- ✓ **무심코 링크**를 누른 순간 개인정보를 빼내는 **해킹파일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링크 예시 : '나의 사진/영상이 돌아다니고 있어', '택배가 분실 되었어요' 등의 메시지가 붙은 링크

3

타인의 동의 없이 사진, 영상을 찍지도, 보내지도, 보지도 않습니다!

- ✓ 타인의 동의 없이 사진, 영상을 촬영·전송하지 않습니다
- ✓ 타인이 촬영에 동의한 촬영물도 동의 없이 전송하면 **범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 불법촬영물을 발견하면 **신고합니다**

4

타인의 사진, 영상에 성적 이미지를 합성하지 않습니다!

- ✓ 성적 이미지 합성물을 제작하고 주위에 퍼뜨리거나 인터넷에 올리는 것은 **유포 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5

타인의 사진, 영상을 퍼뜨리겠다고 위협하지 않습니다!

- ✓ 인터넷, 트위터, 페이스북 등의 SNS, 친구들이 모인 **단체 채팅방** 등에 타인의 사진, 영상을 올리겠다고 위협하는 행위는 **범죄입니다**

6

촬영, 유포, 협박 등으로 두려움을 느낄 때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1366

- ✓ 두려워도 피해 내용을 삭제하지 말고 증거자료로 보관합니다
- ✓ 전문가에 신고하면 전송된 사진·영상을 삭제하거나 추가 유통을 막을 수 있고, 수사 증거자료 수집, 심리치료, 무료 법률상담 등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주변 친구가 피해를 입은 경우 친구를 안심시키며 전문가를 안내해주세요

7

잘 모르는 사람이 개인정보를 묻거나 만남을 요구하면 어른에게 알립니다!

- ✓ 경찰, 전문가, 변호사 등은 개인정보를 묻거나 메시지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 ✓ 내 사진·영상을 내 주변이나 인터넷에 공개한다면 만나자고 하면 **어른이나 전문가에게 상의합니다**
- ✓ 문화상품권, 게임아이템, 기프트콘 등을 준다고 하는 **낯선 사람들**에게도 **물음치지 않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 디지털성폭력 피해촬영물 삭제지원 —

피해 접수

- 전화: 평일 10~17시 (02-735-8994)
- 온라인: 24시간 (홈페이지)

피해 접수

- 플랫폼별 삭제 지원
- 채증 자료 작성 지원
- 월별 결과보고서 제공
- 재유통 방지를 위한 정기 모니터링

* 유죄판결 등 상당은 여성긴급전화 1366(지역번호+1366)과 전국 성폭력상담소(112)서 진행합니다.

☎ 전화 02-735-8994(평일 10시~17시) 이메일 stopdo@stop.or.kr
 팩스 02-6363-9355 온라인 www.women1366.kr/stopdo/

◎ 사이버 경찰청 112

◎ 아동 여성 장애인 경찰지원센터 117



양성평등 교육

성 평등이란 ‘성별’ 때문에 차별 받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성별에 관계없이 개성을 존중받고 자신이 원하는 삶을 자유롭게 사는 것을 말합니다.

성별에 따라 서로 나누고 우열을 가리는 ‘성차별’이라는 편견을 넘어서, 다름을 받아들이고 화합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성 평등에 대해 함께 생각해 봅시다.

1 생활 속 고정관념에 대해 생각해 보아요

여자와 남자는 달라야 해! 라는 고정관념은 옛날보다 약해지긴 했지만 여전히 나의 행동을 막습니다. 성 역할에 갇히지 않고 원하는 대로 행동할 자유가 있습니다. 때문에 고정된 성 역할에 따르지 않거나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공정하지 않게 대한다면 그것은 ‘차별’입니다.

◎ 가족이 만드는 성 역할 고정관념

우리가 태어나 처음 접하는 세상인 가족은 성 역할 고정관념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부모가 나를 대할 때, 딸과 아들로 나누어 대하거나 형제·자매가 여자다운 혹은 남자다운 모습을 강요하기도 합니다. 성별에 따라 다르게 대하는 가족의 태도는 우리 생각에 영향을 줍니다.

예) 남자는 아파도 티내면 안돼~ 눈물 뚫해.

여자는 다리를 모으고 앉아야지~

◎ 대중매체 속에 숨어있는 성 역할 고정관념

TV 프로그램이나 웹툰, 인터넷 동영상 등 대중매체에서 여자, 남자는 ‘이렇게, 저렇게 행동해야’ 하는 것으로 그려질 때가 많습니다. 성 역할에 대한 이미지를 반복적으로 접할수록 성역할 고정관념이 강화되는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존댓말이 없는 영어 대화를 번역하면서 남편은 반말, 아내는 높임말 사용

똑같은 부모인데 남편은 이름으로, 아내는 누구 엄마로 구분

2 성 평등! 나를 나답게 자유롭게

성 평등은 여자와 남자라는 성별을 떠나 각자의 차이를 인정하고 동등한 인격체로 존중하는 것입니다. 성 역할 고정관념이 사라지면 자연스런 감정과 욕구에 따라 행동할 수 있고, 내가 가진 잠재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습니다. 남자다움, 여자다움에서 벗어날 때, 차별과 편견이 사라질 때, 여자와 남자를 구분하고 가르는 대립과 갈등도 사라질 것입니다.

‘나다움’을 있는 그대로 인정받는 것, 성 평등은 우리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 모양은 달라도 역할은 같습니다

유모차바퀴, 자전거바퀴, 마차바퀴, 자동차바퀴,
모양은 모두 달라도 바퀴의 역할은 같습니다.

성별은 달라도 서로의 역할이 평등해야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 출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청소년기는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급성장하는 시기입니다. 청소년 흡연, 음주 및 마약 등 약물오남용이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은 그 시작 단계에서는 대단치 않은 것처럼 보이나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면 성인병 등 각종 질환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그 정도 또한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건강한 미래를 위해 자녀가 위해 약물에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 가져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카페인이란?

커피콩, 코코아콩, 차잎, 과라나 열매, 마테, 콜라나무 열매 등과 같은 식물에 천연적으로 존재하는 물질로 다양한 가공식품에 사용되고 있는 쓴맛을 내는 화학물질이며 뇌의 중추 신경에 영향을 주는 중추신경 자극제

카페인이 들어있는 식품을 찾아봅시다.



카페인 섭취 현황 (2020. 식약처)



카페인 금단현상

카페인을 반복적으로 섭취하던 사람이 갑자기 카페인 섭취를 중지했을 때 나타나는 증상



※ 금단증상은 상대적으로 심하지 않아서 1주일 정도만 잘 참으면 극복할 수 있어요!

고카페인 음료 확인법

고카페인 음료란?
카페인 함량이 ml당 0.15mg 이상 함유된 음료를 말합니다.



고카페인 함유
총카페인 함량 85mg

고카페인 함유 음료에는
“총 카페인 함량”, “고카페인 함유” 문구와
“어린이, 임신부, 카페인 민감자는
섭취에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의
주의 문구가 표기되어 있으니 꼭 확인 후 드세요!



감염병 예방 교육

1 학교에서 자주 발생하는 감염병

병명	임상증상	전파차단을 위한 등교중지 기간 (의사 소견에 따름)
홍역	발진, 발열, 기침, 콧물, koplik 반점	발진이 나타난 후 4일까지
수두	피부 발진, 수포, 발열, 피로감	모든 수포에 가피가 형성될 때 까지
유행성 이하선염 (볼거리)	이하선 부종, 발열, 두통, 근육통	증상 발생 후 5일까지
인플루엔자	발열, 두통, 근육통, 인후통, 기침, 객담	환자상태에 따라 실시 (가급적 등교중지 권고)
수족구병	발열, 손, 발바닥과 구강 내 수포 및 궤양	수포 발생 후 6일간 또는 가피가 형성될 때 까지
노로바이러스	오심, 구토, 설사, 복통, 권태감, 발열	증상 소실 후 48시간까지
코로나19	콧물, 기침, 두통, 호흡곤란, 인후통 등	증상이 없어질 때까지 권고

2 감염병 발생 시 등교중지 및 출석 인정

1) 학생이 타인에게 전염 가능한 감염병에 걸려 등교중지를 한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합니다.

- 가. 감염병이 의심되면 등교하기 전에 담임 선생님께 전화 연락 후 병원 진료를 받습니다.
- 나. 병원 진료 후 감염병 진단을 받으면 담임 선생님께 전화 후 집에서 격리 치료를 합니다.
- 다. 완치되어 등교할 때 병원에서 의사 소견서 등을 받아 담임 선생님께 제출합니다.

2) 감염병 전파 방지를 위한 협조 사항

- 가. 학생이 열이 나거나 기침을 많이 하는 상태로 등교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친구들에게 감염병을 전파 시킬 수 있습니다.
- 나. 감염병이 발생하면 충분한 휴식을 취해서 면역력을 높여야 하는데 무리하게 등교하면 치료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 다. 해마다 감염병이 유행하고 새로운 종류의 감염병이 발생합니다. 감염병은 누구나 걸릴 수 있으므로 단체 생활에서 서로의 입장을 배려하여 감염병 발생을 조기에 차단합니다.



첫째, 기침예절 실천

- ① 호흡기 증상 있을 시 마스크 착용하기
- ② 기침할 때는 휴지와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 ③ 기침한 후에는 비누로 손씻기
- ④ 사용한 휴지나 마스크는 바로 쓰레기통에 버리기

둘째, 올바른 손씻기의 생활화

- ①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 ② 외출 전후, 식사 전후, 코 풀거나 기침·재채기 후, 용변 후 등
- ※ 비누로 손 씻으면, 호흡기 감염병 5명 중 1명이 예방 가능



셋째,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 만지지 않기



넷째, 실내에서는 자주 환기하기

- ① 하루에 최소 3회, 대략 10분 이상 환풍 열기
- ② 학교, 어린이집 등 공공시설에서는 출입문과 창문을 동시에 열기



다섯째, 발열 및 호흡기 증상 시 의료기관 방문하여 적절한 진료받기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행동요령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정신건강증진

1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우리나라 20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자살률은 2009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이며, 2012년 기준 청소년 인구 10만 명당 자살사망자는 5.1명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9년 이후 아동 청소년 사망원인 1위는 자살입니다.

1

아동·청소년 자살의 특징

- ◆ 치명적인 자살률은 성인기로 갈수록 증가하지만 자살 기도율이 가장 높은 시기이다.
- ◆ 청소년의 입장에서 **분명한 동기**가 있다.
- ◆ **남을 조정하려는 의도**나 자신에게 부당하게 대했다고 지각하는 가족이나 친구들에 대한 **보복**으로 자살기도를 한다.
- ◆ **충동성**이 강하게 작용하여 순간적으로 이루어진다.
- ◆ 피 암시성이 강하여 동반자살이나 **모방 자살**이 흔히 일어난다.
- ◆ 치사도가 높은 자살 수단을 사용한다.
- ◆ 용이하게 선택할 수 있는 추락, 투신으로 인한 자살률이 증가하고 있다.
- ◆ 현실의 고통에서 벗어나 사후세계에서 해결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다.

2

아동·청소년 자살의 촉발 요인

- ◆ 부모님꾸중, 다툼 : 11.3%
- ◆ 학업, 진로 고민 : 10.7%
- ◆ 가정갈등, 불화, 경제사정 : 9.3%
- ◆ 정신질환, 우울감, 외로움 : 8.7%

3

자살 경고 표시

1. 식사 습관과 잠버릇이 눈에 띄게 변화한다.
2. 평소 참가하던 행사나 활동을 안하고 가족이나 친구들과 잘 어울리려 하지 않는 등 성격이 갑자기 변한다.
3. 평상시와 다른 반항, 파괴적 행동, 급격한 성격변화가 있다.
4. 성적이 부진해지며 장기결석이나 가출을 한다.
5. 일기장이나 친구에게 ‘어딘가 멀리 가고 싶다. 잠들어 깨지 않으면 좋겠다.’ 등 죽음의 내용을 암시한다.
6. 자살에 관한 책을 읽거나 자살 관련 사이트에 가입하여 활동하거나 글을 쓴다.
7. 청소년 스스로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하거나 심한 열등의식에 사로잡혀 있다.
8. 사소한 일로 짜증을 내거나 도전적 발언을 할 때

4

자살예방을 위한 대화기법

1. 상대방을 평가하지 말고 짧게 이야기하여 상대방이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2.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 기다린다.
3. 눈을 마주 보며 차분한 목소리로 편안하게 앉아서 이야기한다.
4. 한 번에 한 가지 주제에만 초점을 맞춘다.
5. 다른 사람의 분노, 고통을 이해해 주며 다른 사람의 기분을 소중히 여긴다.
6.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되도록 제안을 하고 요구를 하지 않는다.

5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전문상담기관

- ◆ 김제시 정신보건센터 ☎ 540-1359
- ◆ 김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545-0112
- ◆ 김제교육청 Wee센터 ☎ 540-2551
- ◆ 자살 예방사이트 ☎ 1577-0199 www.suicide.or.kr
- ◆ 한국생명의 전화 ☎ 1588-9191 www.lifeilne.or.kr

2

정신건강 증진 교육(새학기 친구관계 돕기)

새학기를 맞이하여 새로운 교실에서 새로운 친구들과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학교에 다니고는 있지만 학교생활을 즐겁게, 건강하게 다니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할 것입니다. ‘새로운 친구들과는 잘 지내는지?’ 학교생활의 규칙을 잘 지키며 생활하고 있는지?, ‘공부는 안 하고 놀기만 했는데, 수업을 잘 따라갈 수 있을까?’ 등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 있겠지요. 오늘은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녀의 친구 관계에 대해 살펴보고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친구 사귀기가 어렵다는 아이

- 친구 사귀기가 어렵다는 학생은 어려서부터 낯을 가리고 내성적이며 조용하다는 말을 듣고 자란 경우가 많습니다. 걱정과 겁이 많고, 쉽게 긴장해서 잘 놀라거나 완벽주의 성향이 있는 학생도 친구 사귀기를 어려워 할 수 있습니다.
- 새학기 같은 반에 아는 친구가 없으면 주변 학생과 어울리지 않거나, 집에서는 말을 잘하지만 학교에서는 작은 소리로 짧은 대화만 하는 아이도 있습니다. 방학이 끝나고 오랜만에 학교에 가면 두통, 복통을 호소하여 등교 거부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집에서는 말을 잘하고, 학교에서도 큰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기에 가정과 학교에서 아이의 어려움을 파악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친구 없이 긴급하고 사춘기를 맞이하면, 아이는 갑자기 학교 가기 싫다고 선언하거나, 우울해하며 은둔형 외톨이처럼 될 수도 있습니다.
- 이런 성향의 아이는 겁이 많아서 기본적으로 사람을 대하는 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친구를 왜 어려워해?’라며 설득하거나 혼내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아이가 코로나19 이전에도 겁이 많은 성향이라면, 지난 3년 동안 친구와 어울릴 기회가 적었기에 문제가 심해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 보면 안 볼수록 두려워집니다. 반대로 만나면 만날수록 두려움은 줄어듭니다. 이런 방법을 노출치료라고 하며, 두려운 것에 다가가기, 직면하기, 도전하기로도 부릅니다. 겁이 많은 성향의 자녀에게 갑작스러운 강한 도전은 고통일 수 있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도전할수록, 자녀가 두려움을 극복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부모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

- 낯선 사람을 만나 대화하는 연습하기(물건 구입 등)
- 자녀와 함께 사람이 많은 장소로 외출하기
- 친한 친구가 있다면 친구와 외출하도록 격려하기
- 운동이나 취미 학원을 통해 또래 친구를 사귄 기회 만들기
- 담임 선생님과 의논하기
- 집에서 용기 내서 말하기를 연습해보기 등

2

또래 친구가 두렵다는 아이

- 낯을 가리고 친구 사귀기가 어려운 것을 넘어서, 또래 친구를 무서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전에 또래 친구에게 심한 괴롭힘과 놀림을 당했다면, “또 괴롭힘을 당하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에 학교에 가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부모 입장에서라도 자녀가 또 괴롭힘을 당할까 염려가 될 것입니다.
- 괴롭힘이나 따돌림을 당한 이유가 무엇이든, 심한 괴롭힘을 당한 아이는 자신의 어려움을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 생활이나 친구 관계에 어려움이 있어도 도움을 청하지 못해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 마음에 상처가 있는 아이에게 힘들어도 학교에 가서 참고 견디라는 식의 노출(직면치료)은 위험합니다. 문제를 숨기다가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힘든 일이 있으면 말을 해. 왜 말을 안 해?”라고 다그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힘든 문제가 생기면 부모가 들어줄 준비가 되어 있으며, 힘든 표현을 외면하지 않고 배려해 줄 것이라는, 함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줄 것이라는 확신을 보여주십시오.
- 진지하게 자녀의 어려움을 들어줄 마음의 준비, 부모 입장에는 어리석어 보이는 생각을 해도 비난하거나 지적하지 않고 자녀의 입장을 존중해주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부모-자녀 관계가 형성된다면, 자녀도 부모에게 자신의 어려움을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 자녀와 매일 경험을 공유하는 대화시간을 가지면 부모에게 어려움을 표현하는데 효과적입니다. “오늘 무슨 일 있었어?”라며 친구끼리 대화하듯이 서로의 하루를 공유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가족 간의 대화시간을 통해 악화될 문제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으며, 친구를 보는 눈을 키우고,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3

다른 친구에게 피해를 주는 아이

- 친구들에게 피해를 주는 아이는 학교에서 또래 갈등을 유발할 수 있기에 학교 선생님과 협력하여 초기에 적극적으로 문제를 파악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쉽게 짜증을 냄 ■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어주지 않음 ■ 선생님의 지도를 잘 따르지 않음 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쉽게 화를 냄 ■ 놀림과 장난이 심함 |
|---|---|

- 집에서도 어느 정도 허용과 단호함의 균형을 유지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집에서는 허용적인데 학교에서만 단호하면, 점차 학교에 가기 싫어하고 부모를 대하는 행동이 더욱 나빠질 수 있습니다. 잘 들어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일관성, 단호함, 합리적인 조치가 중요합니다.

- 미디어와 서적의 부모교육 자료를 참고하실 수 있으며, 문제가 지속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부모교육에 도움이 되는 사이트

-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 : www.smhrc.kr
- 학생건강정보센터 : www.schoolhealth.kr
- 학부모On누리 : www.parents.go.kr



가정폭력 예방교육

1. 가정폭력이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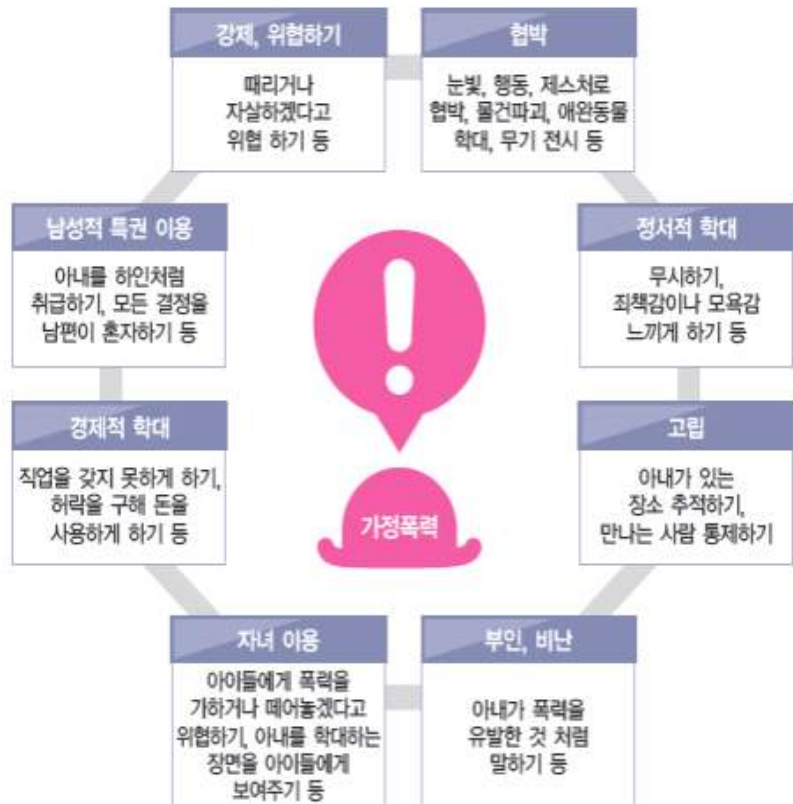
- 가정 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조

2. 가정 폭력의 파급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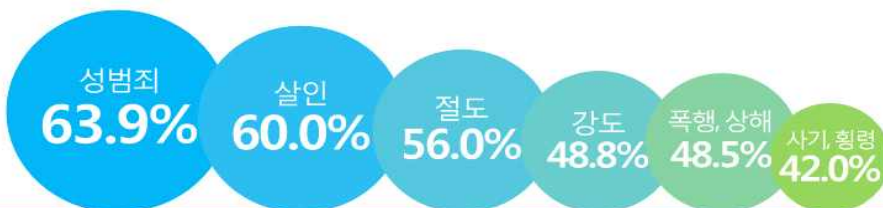
학대의 현장에 노출된 아이들은 자존감, 자아상에 심각한 문제를 겪게 되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기도 합니다. 또한 책임지는 것을 어려워하게 되고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리게 되어 정상적으로 성장하고 발달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아이들을 방치하고, 올바른 성장으로 이끌지 않는다면, 이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또다시 타인에게 정서적 물리적 폭력을 휘두르는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은 한 가정 내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폭력으로 확산되거나 다음 세대로 대물림될 수 있는 심각한 범죄인 것입니다.



수감자 최종별 가정폭력 피해경험

(대상: 교도소 수형자 486명)



✓ 아버지의 음주, 폭력
✓ 어머니의 정서적 학대

연쇄살인범
유00

✓ 아버지의 폭력

강간살해
김00

✓ 아버지의 음주, 폭력

연쇄살인범
정00

출처: 신동욱(2003). 아동, 청소년기 가정폭력 경험이 성인범죄에 미치는 영향. 경찰대 치안정책 연구소



아동학대 예방교육

1.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 (아동학대의 행위자 대부분은 부모!)

♣ 아동이란? 👁 만 18세 미만

학대 유형	학대 내용	처벌
신체적 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로,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우발적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의도적으로 피해아동에게 행하는 신체적 폭력 또는 가혹 행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정서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정신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로서,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폭력,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성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 행위로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성적 행위	👁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폭행 등의 학대행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아동을 타인에게 매매,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거나 음행을 매개하는 행위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방임·유기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행위, 물리적 방임, 교육적 방임, 의료적 방임, 유기 등으로 나눌 수 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2. 아동학대의 원인과 후유증

학대행위자인 부모들의 특징

- 양육태도 및 방법부족 (30.4%)
- 사회경제적 스트레스 및 고립 (23.3%)
- 부부 및 가족갈등 (10.1%)
- 성격 및 기질문제 (8.0%)

출처: 2012년도 아동학대 현황 보고서 (보건복지부)

- ▶ 매년 학대행위자의 **83% 이상이 부모**
- ▶ 방임의 경우, 부모에 의한 발생률 90% 이상

요인

정신장애 / **학대경험** / 약물 중독 / 자녀에 대한 비현실적 기대 / 충동 / 부모역할에 대한 지식 부족 등

결과

- 학대로 인한 사망
- 아동에게 심은 상처
- 아동 자신을 무가치하게 느낌
- 아동의 신뢰가 파괴됨

3. 아동학대의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 보호 강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 및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아동학대 처벌 및 피해아동 보호절차 대폭 강화 (2014. 1.28 공포, 2014. 9.29 시행)

1. 아동학대 가중처벌 규정 신설
(학대치사)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학대중상해) 3년 이상 징역
(상습범 및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 시) 형량의 1 / 2 가중 처벌
2.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 10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운영 금지
3. 중상해 및 상습학대행위자는 검사가 친권상실 청구
4. 신고의무자 제도 강화(과태료 500만 상향조정, 아이돌보미 등 직군 확대)
5. 현장조사권 강화 - 학대행위자 임시조치(친권제한, 격리 등) (최장4개월)
6. 피해자 국선변호사 및 진술조력인 제도 도입 (기존은 성폭력 사건만 혜택)
7. 아동보호전문기관장이 법원에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 가능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 직무상 아동학대를 인지할 가능성이 높은 직군의 시민들에게는 신고 의무 부여
“신고의무자들은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단, 누구든지 신고 가능!
<아동복지법 제25조 제2항>

◎ 신고 및 상담

- 경찰청 112
- 안전Dream 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www.safe182.go.kr)
- 사이버112(cyber112.police.go.kr)

4.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노력

● 연령별 아동 특성 이해

자녀가 가진 능력이나 발달 이상으로 부모의 기대 수준에 맞게 행동해 주기를 원하는데 이
처럼 높은 기대는 아동학대의 가능성을 높이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에 다양한 아동 발
달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 올바른 자녀 양육 방법 습득

아동을 소유물로 생각하지 않고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여 체벌과 훈육을 혼동하지 않도록 해
야 합니다.

● 부모의 스트레스 관리

부모의 언행은 항상 자녀의 모델이 됩니다. 언행은 신중히 생각하신 후에 해주세요. 부모들
은 자신의 욕구가 충족되지 못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아동에게 그 불만을 터뜨리게 되
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게 정서적 욕구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
습니다.

● 자녀의 잘못된 행동에는 심한 처벌이나 질책보다는 사랑과 관심으로 지도합니다.

● 필요시 학교 선생님과 정보를 교환합니다.



학교 폭력 예방교육

1. 학교폭력이란?

법률 제2조(정의) :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2. 학교폭력의 이해

1. 사소한 장난, 정서적 괴롭힘도 학교폭력입니다.

침뺨기, 눈 흘기기, 머리를 툭툭 건드리는 것이 학교폭력일까요? 네, 모두 학교폭력입니다. 분명 하게 드러나는 신체적인 폭력이 아니라도 휴대폰 문자, SNS를 통한 조롱, 손쉽게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괴롭힘도 피해학생이 우울, 분노, 불안 등의 감정을 느낀다면 '폭력'입니다.

2. 학교폭력은 피해학생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학교폭력 신고, 교사와의 상담 등의 방법이 있음에도 피해학생은 보복이 두려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래 친구들과 학부모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이 있어야만 피해학생이 학교폭력의 늪을 헤쳐 나올 수 있습니다.

3. 학교폭력은 아이들이 온라인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학교폭력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유튜브 등 각종 온라인 소셜미디어 앱을 통해 이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녀들의 스마트폰 사용 행태에 주의를 기울이면 사이버 학교폭력을 예방 또는 사전에 감지할 수 있습니다. 지나친 스마트폰 사용은 학교폭력에 노출될 가능성을 높입니다.

4. 학교폭력,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폭력의 발생을 교사, 부모, 학교, 경찰 등에 즉각적으로 알릴 때 비로소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학생 혼자서 끙끙 앓는 것으로는 아무런 해결이 이뤄지지 않습니다. 저학년 때부터 학교폭력에 대해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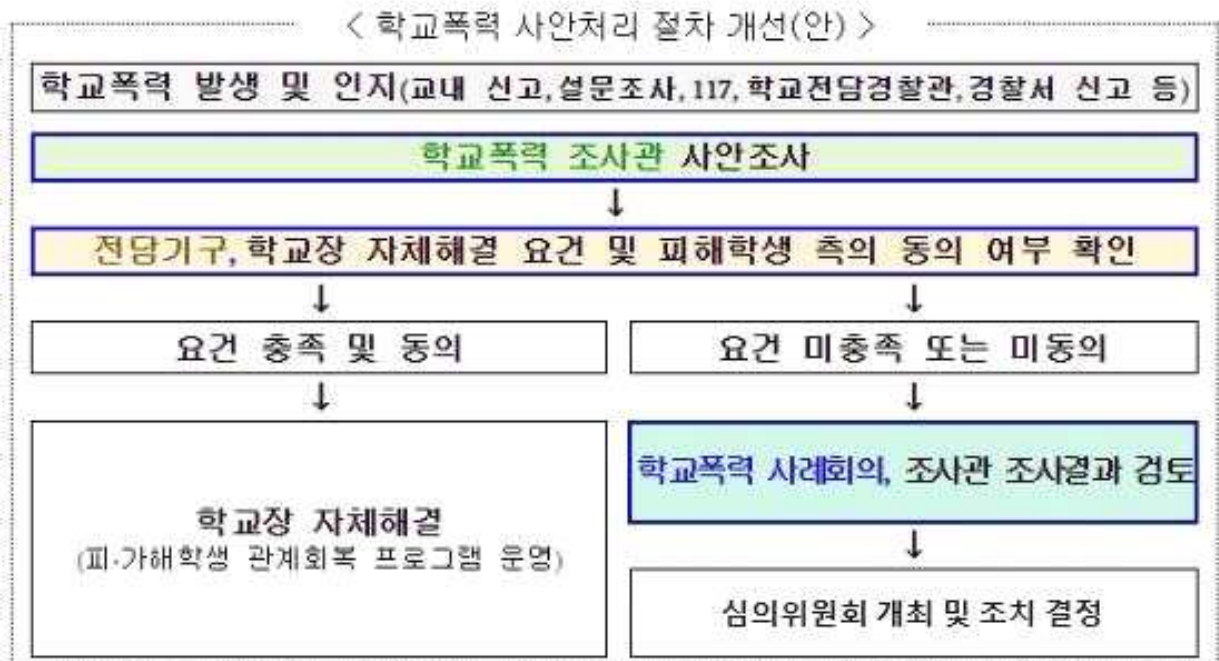
3. 학교폭력 예방하기 (자녀들을 위해 이렇게 해주세요.)

1. 자녀들에게 **사소한 괴롭힘도 폭력임**을 알려주세요.
2. 매일 자녀의 학교생활과 친구와의 관계에 관한 대화를 나누세요.
 1. “무슨 일이 있으면 꼭 얘기해. 우리는 항상 네 편이란다”라고 이야기해 주세요.
3. 휴대폰 안 쓰는 시간 약속하기 등 건강한 휴대폰 사용 습관을 길러주세요.
4. 비싼 물건이나 전자제품 등을 학교에 가지고 가지 않도록 해주세요.
2. 학교폭력을 목격하거나 사실을 알았을 때 선생님, 부모님께 이야기하도록 당부해주세요.
5. 자녀에게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는 태도를 가르쳐주세요.
6. 주변의 학교폭력 관련 기관 정보를 미리 알려주세요.
7. 학부모 대상의 학교폭력 예방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세요.
8. 자녀의 담임선생님과 주기적으로 상담하세요.

4. 학교폭력 대처 방법

피해학생 부모의 경우	가해학생 부모의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이를 탓하지 마세요. 학교폭력은 당신 자녀의 문제가 아닙니다. ▶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피해사실을 은폐, 축소하지 마세요. ▶ 힘든 내색하지 마세요. 부모가 절망하면 아이는 더 움츠러듭니다. ▶ 보복하지 마세요. 보복으로 아이의 상처를 치료할 수는 없습니다. ▶ 도피하지 마세요. 문제회피, 침묵, 전학, 이사는 해결책이 아닙니다. ▶ 아이를 응원해주세요. '절대 네가 잘못된 게 아니야'라며 지지해주세요. ▶ 도움을 요청하세요. 먼저, 담임교사에게 학교폭력 사실을 알리세요. ▶ 증거를 확보하세요. 문자메세지, 이메일, 음성녹음, 상해진단서 등 ▶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세요. 대화와 관심, 자녀의 생활에 즐거운 변화를 줍니다. ▶ 보호해주세요. 교문 앞에서 아이를 기다려 주세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인하지 마세요. 또 다른 가해 행위입니다. ▶ 피해학생을 탓하지 마세요. 피해학생에게서 폭력의 원인을 찾지 마세요. ▶ 정당화하지 마세요. 애들은 싸우면서 크다며 정당화하지 마세요. ▶ 회피하지 마세요. 불안, 걱정과 두려움으로 책임을 회피할 수 없습니다. ▶ 포기하지 마세요. 부모가 자포자기하면 최악의 상황으로 이어집니다. ▶ 가해사실을 확인하세요. 아이와 친구, 교사에게 정확한 경위를 확인합니다. ▶ 잘못을 인정하세요. 아이의 잘못과 부모의 책임을 인정합니다. ▶ 진심으로 사과하세요. 아이와 함께 사과하고 회복을 지원합니다. ▶ 아이의 학교생활에 관심을 가지세요. 화해,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해요. ▶ 다시 기회를 주세요. 전문가 상담, 봉사활동 등은 성장의 기회를 줍니다.

5. 학교폭력, 어떻게 처리되나요?





인권교육

1. 인권, 학생 인권이란?

- 인권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 권리’ : 사람이 자유와 평등을 누리며, 인간적 생존권을 보장받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권리입니다.
- 학생 인권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인간적 존엄을 보장받으며, 인권 친화적인 분위기에서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권리

2. 학생 인권 관련 법률

- ◆ 교육기본법 제12조(학습자) “학생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
- ◆ 초·중등교육법 제20조 제4항(교직원의 임무) “교사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
- ◆ 초·중등교육법 제18조 제1항(학생의 징계)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
-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0조 제8항
“학교의 장은 법 제1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지도를 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 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 ◆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 4(학생의 인권보장) 학교의 설립자, 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12.14]

3. 학생 인권은 어디까지 보장되나요?

- 인권은 개인의 권리 보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과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의무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 그래서 인권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발현되고 완성된다.”라고 합니다. 즉, 자신의 인권이 소중한 만큼 타인의 인권도 존중해야 합니다. 따라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개인의 인권은 일정한 범위 안에서 제한받기도 합니다.
- 학생인권조례에서도 “학생은 인권을 학습하고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며, 교사 및 다른 학생 등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생이 자신의 권리만 주장하면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교사의 정당한 생활교육마저 거부하는 것은 학생 인권 보장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인성교육

1. 문제 상황과 해결방법

구분	문제 상황	문제의 원인	해결방법
화가 나면 욕부터 해요	- 아무 생각 없이 욕하는 아이 - 화를 참지 못해 욕하는 아이	- 부모나 또래 관계에서의 모방과 학 습의 결과 - 충동적이고 급하며 잘 참지 못하 는 성격의 표현 - 부모의 방임이나 원만하지 못한 또 래 관계에 대한 저항의 방법	- 당황하거나 과민 반응은 금물 -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되는 '나쁜 말'이라는 사 실을 인식시켜야 함 - 부모의 모범이 우선
짜증만 자꾸 내요	- 짜증내고 친구들과 싸우는 아이들 - 폭력적이고 남에 게 의존적인 아이 - 산만하고 집중력 이 저하되는 아이	- 성급한 결과에 집착 - 아이에게 간섭이 심한 부모 - 아이 능력 이상의 것을 강요 - 빨리빨리 하는 생활에서 오는 긴 장감	- 부모의 인내심이 우선 - 아이가 원할 때 챙겨주는 엄마의 손길 - 행동의 결과보다는 과정에 주목 - 지나친 부모의 욕심과 기대는 금물 - 스스로 문제해결의 시간을 갖도록
나는 잘못이 없어요	- 자기 중심적인 아이 - 항상 누구누구 때문에 - 문제 원인을 다른 곳에서	- 자신의 의견을 고집하는 부모님 - 아이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질투심 - 자녀들의 행동에 대한 부모들의 방임 - 아이의 변덕을 무조건 받아주는 집 안 분위기	- 아이의 성장가능성 인정, 잘한 행동은 칭찬 -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 - 아이들의 생각을 먼저 인정 - 부모님 스스로 친절과 이타심을 본 보여야 함
친구 들과 티격 태격	- 친구들을 때리는 아이 - 친구들과 자주 다툼하는 아이	- 주변 인물의 모방 - 원만하지 못한 부부간의 관계 - 적절한 가정교육의 부족과 부모의 무관심 - 부모나 권위적 인물에 대한 적대감 과 반항심	- 아이가 싸우는 목적 파악 - 강압적인 방법과 훈계는 금물 - 부부관계 개선 - 덜하지도, 과하지도 않은 적절한 훈육 필요 - 분풀이를 대신할 적절한 대안 지도 - 바람직한 행동 강화 - 아이의 마음을 헤아리는 대화

2. 이것만은 반드시 지켜주세요

- 공공장소(교실, 복도)에서 시끄럽게 떠들거나 뛰어다니지 않도록 해주세요.
- 과도한 경쟁적 분위기를 지양하고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 볼 수 있게 차례를 지키도록 해주세요.
- 가족과 함께하는 식사를 통해 밥상머리 교육이 필요해요.

3. 밥상 머리 인성교육이 중요한 이유

◆ 스마트폰과 TV보기가 아닌 '대화'를 하는 시간

밥상머리교육을 위해선 부모가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만지거나 TV를 보지 않도록 지도해야 하죠. 부모님이 먼저 아이에게 학교생활, 교우관계 등에 대한 이야기를 꺼낸다면 대화가 활발해지고, 가족 간의 두터운 친밀감도 형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빨라지는 언어 습득 능력

미국 하버드대 캐서린 스노 박사 연구팀이 3세 자녀를 둔 83개 가정을 대상으로 2년간 아이들의 언어습득 능력을 연구한 결과, 연구기간동안 아이들이 평균적으로 습득한 어휘는 2,000여 개였으며, 그 중 가족 식사 중 배운 단어가 1,000개가 넘었다고 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School Zone) 및 교내차량 진입 금지!!

강화된 도로교통법(일명 민식이법)을 준수하고, 등.하교 차량에 대해 발생한 민원에 대해 대응하고자 어린이 보호구역 및 교내차량 진입에 대한 합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제한사항을 안내드리오니, 학생들의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등하교를 위해 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등교시각 준수 안내

- 학생 안전과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한 등교시간입니다.
- ※ 가정에서는 학생들이 수업시작 시각(09:00) 최소 10분 전에 교실에 들어올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2.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 안내

- 스쿨존(School Zone)이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스쿨존에서는 주.정차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1분 이내의 정차는 가능하지만, 모두의 안전을 위해 주.정차를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 차량은 **운행 속도를 30km/h 이내**로 제한하여 서행하여야 합니다.
- 학생들은 스쿨존 내에서 도보로 등교합니다.
- 차량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스쿨존 내 횡단보도 앞에서는 미리 서행.정차**하며 신호를 준수합니다.
-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학교 **교문 앞에서 유턴을 금지**하여 주십시오.

3. 학생 교통안전(등교) 안내

- 등.하교 시 차량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교통안전지도에 가정에서도 각별히 유념하여 주십시오.
- 학생들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보행로와 횡단보도, 교통신호를 준수해야 합니다.
(차도를 건널 때 차가 오는지 확인하고 건넙니다.)
- 스쿨버스를 이용하여 등.하교 시 반드시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합니다.
- 학생들은 학교 등.하교 시 횡단보도 이용 및 스쿨존의 보행로를 따라 등.하교 합니다.
- 움직이는 차량 안에서는 이동을 금지합니다.

4. 교내 차량 진입 금지 안내

- 학교는 학생들이 가장 안전하게 생활하는 곳입니다. 학생 안전을 위해 **교내 차량 진입은 금지되어 있으므로, 이를 필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 학생평가

1

학생의 배움과 성장을 지원하는 학생평가

- 가. 교육과정에 바탕한 교수·학습과의 일관성 있는 평가 운영으로 학생의 배움과 성장을 돕는 과정중심 평가 내실화
- 나. 결과 중심·서열 중심의 평가를 지양하고 기초·기본학력 토대 위에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창의력 및 문제해결력 등 핵심역량을 키워줄 수 있는 학생평가 체제로 개선
- 다. 교사의 학생평가 전문성·자율성·책임성 강화를 통한 평가의 객관성, 공정성, 투명성, 신뢰도 제고

2

학생평가의 주안점

- 가. 학생 개개인의 교육 목표 도달 정도 확인 및 학습결과에 대한 보충
 - 학생에게 평가 결과에 대한 적절한 정보 제공과 추수 지도를 통해 학생이 자신의 학습을 지속적으로 성찰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지도
- 나. 교수·학습의 질 개선
 - 학교와 교사는 학생 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수업의 질을 지속적으로 개선

3

학생평가의 방법

- 가. 교과와 성격과 특성 및 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합한 평가 방법 활용
- 나. 학력 향상을 위한 인지적 영역 수행평가 내실화 및 서·논술형 평가(4-6학년) 비중 확대
- 다. 평가 요소를 가장 적합하게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선정하되, 학생(학년)의 발달 수준을 고려하며, 사고의 확장을 자극할 수 있는 문항으로 구성
- 라. 창의적 체험활동은 내용과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의 주안점을 학교에서 결정하여 평가
- 마. 서·논술형, 포트폴리오, 조사, 실험보고서, 구두발표, 실험·실습, 토론 등 다양한 평가 방법 활용
- 바. 진단평가(3월-전학년), 형성평가(년중-전학년), 총괄평가(7월,12월-4,5,6학년)실시를 통한 기본 학습 요소 배움 확인 적극 권장



기초학력 향상 지원

1

기초학력이란?

- 가. 학생이 학교 교육과정을 통하여 갖추어야 하는 최소한의 성취기준을 충족하는 학력
(법 제2조 제1항)
- 나. '최소한의 성취기준'이란 국어, 수학 등 교과와 내용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데 필요한 읽기·쓰기·셈하기를 포함하는 기초적인 지식, 기능 등(시행령 제2조 제1항)

2

기초학력 책임교육 내실화

- 가. 교과보충 프로그램
 - 1) 목적: 수업 내에서의 학습결손 조기 발견 및 적기 해소
 - 2) 내용: 기초 학력 결손 학생 뿐만 아니라 기본학력이 필요한 학생 지원
 - 1:(소수) 학습지원(담당교사 지도)
- 나. 두드림학교 운영
 - 1) 목적: 단위학교 중심 학습지원대상학생 맞춤형 지원 운영
 - 2) 내용
 - 복합적 요인을 지닌 학습지원대상학생 원인별 맞춤형 지원
 - 1:(소수) 맞춤형 학습지원(외부강사 지도)
- 다. 난독·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
 - 1) 목적: 난독·경계선 지능을 조기 발견 및 적기 해소
 - 2) 내용
 -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검사 진행 후 판정이 나면 맞춤형 중재교육 지원
- 라. 예비교원 튜터 지원(추후 안내예정)
 - 1) 목적: 교육결손 해소 및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가정보충 학습 활성화
 - 2) 내용: 예비교원과 대면 또는 비대면 선택하여 학습지원

3

기대효과

- 가. 단위학교 책임교육 내실화를 통한 공교육 책무성 강화
- 나. 학습부진 요인별 체계적 진단을 통한 학생 맞춤형 교육지원
- 다. 학생 맞춤형 교육지원 강화를 통한 기초학력 보장 실현
- 라. 기초학력 향상 지원을 위한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기반 마련



‘공교육 정상화법’

1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 배경

가. 다른 학습자의 학습권과 교사의 수업권 침해

학생이 수업 내용을 미리 알고 있을 경우 학생 자신은 학교 수업의 적극성이 결여되고 교사는 학생들이 이미 알 있다고 판단하여 기본개념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는 악순환으로 인한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수업권이 침해를 받게 됨.

나. 사고력과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의 저하

학교교육과정은 학생의 인지, 정서 및 사회발달 단계와 사고의 수준을 고려하여 구성되어 있으나 발달 단계와 사고의 수준을 넘어서는 내용의 학습으로 충분히 사고하고 이해하려는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이 떨어져 피상적이고 기계적인 문제풀이 학습에 치우치게 되어 사고력, 흥미도 및 집중력 저하 등 다양한 문제를 파생시키게 됨.

다. 남보다 앞서 나가기 위한 지나친 속도 경쟁

선행학습을 하는 내용이 곧 그 학생의 실력이라는 잘못된 편견(예: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중학교 1학년 수학을 하고 있으면 중학교 2학년 수학을 공부하는 학생이 더 잘한다는 인식)으로 인하여 선행학습은 무한 속도 경쟁에 내몰리고 있는 실정이나 사고력 저하로 대학입시에서는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하고 있음.

라. 학부모의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

통계청이 발표(2021.3.11.)한 2021년 초·중·고등학교 사교육비 총액은 약 23.4조원으로 이는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저출산과 노후 준비를 못하는 등 에듀푸어 양산은 중산층 붕괴를 가속화로 이어져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2

공교육 정상화법 추진 과제

비전			
선행교육 근절을 통한 공교육 정상화			
목표	교육과정 정상 운영 지원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 관행 근절	선행학습 예방 사회적 인식 개선
과제	지원체제 구축	교육과정 및 입학전형 검토 강화	연수 및 홍보 강화
	①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② 선행교육예방 홈페이지 구축·운영 ③ 학원 지도 및 점검	① 교육과정 운영평가 검토 ② 입학전형 감독 강화 ③ 입학예정자 대상 검토 ④ 방과후학교 운영점검 ⑤ 위반 시 조치사항	① 교원 연수 강화 ② 학부모 교육 강화 ③ 선행 교육 예방 홍보



교육활동 보호 연수

1. 교육활동이란?

- ❖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장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라 학교의 안팎에서 학교장의 관리·감독하에 행하여지는 수업·특별활동·재량활동·과외활동·수련활동·수학여행 등 현장체험 학습 또는 체육대회 등의 활동
- ❖ 등·하교 및 학교장이 인정하는 각종 행사 또는 대회 등에 참가하여 행하는 활동
- ❖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간 중의 활동으로서 위의 2개의 항목과 관련된 활동

2.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약칭 교원지위법) 시행

-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 법률 제16309호, 2019.10.17. 시행)
- ❖ 교원의 교육활동이 교원지위법에 따라 보호되고 있음

3. 교육활동 침해 행위

- ❖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교육활동 보호위원회의 달라진 점 및 교육활동 침해 처리 절차

- 2024. 3. 28.자로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지역교권보호위원회(지역교육지원청)로 이관됩니다.
-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유지(2024.3.27. 까지 운영)
-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사안 처리 사항

▶사안 발생보고서 전북교육인권센터로 보고

▶사안 조사(2차)

- 사안 발생보고서 검토 및 확인(필요시 현장 확인 조사 및 추가 면담 조사 실시)
- 사안 조사보고서 작성

▶지역교권보호위원회

- 위원회 소집, 심의·의결(회의록 작성 포함), 처분·통지, 후속조치, 심의결과 보고
- 분쟁조정

▶ 심의 결과 보고서 작성 및 전북교육인권센터로 보고



‘청탁 금지법’

학 교 에 서 알 아 야 할 청탁 금지법 Q&A

적용대상

Q. 학교운영위원회나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위원(구성원)인 학부모는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다? ○

A. 초·중등교육법령 또는 학교폭력예방법령에 따라 설치된 학교운영위원회나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학부모위원(구성원)은 공무수행사인으로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입니다.

* 공무수행사인은 ‘공무수행에 관하여’만 청탁금지법(부정청탁, 금품등 수수 금지)이 적용

Q. 방과 후 교사는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니다? ○

A. 방과 후 교사는 교원이 아니므로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 반면, 기간제교사는 교원(‘교육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으로 적용대상에 해당

선생님에게 제공되는 선물

Q. 학생이 담임선생님께 5만원 이하의 선물이라도 드려서는 안된다? ○

A.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와 학생 사이의 선물은 가액기준인 5만원 이하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안됩니다.

Q.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이 교장, 교감선생님께 5만원 상당의 선물은 해도 된다? X

A. 학생들의 성적, 수행평가, 진학 관련 추천 등 학교생활 전반을 관장하는 교장, 교감선생님과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간에는 밀접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가액기준 내의 선물이라도 허용되기 어렵습니다.

선생님에게
제공되는 선물

Q. 학부모가 자녀의 **작년 담임선생님께**
감사의 선물을 드릴 수 없다? X

A. 현재 담임교사, 교과담당교사 등이 아닌 경우에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하는 5만원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은 10만원) 이하의 선물은 가능합니다.

Q. **졸업식 날 학생들이 담임선생님께**
꽃다발을 드려서는 안된다? X

A. 성적평가 등 학사일정이 완전히 종료된 졸업식 날 이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이 없으므로
5만원을 초과(100만원 이하)한 선물도 허용될 수 있습니다.

선생님에게
제공되는 선물

Q. **첫째 아이가 졸업하는데 동생이 같은 학교에**
재학하는 경우 첫째 아이의 담임선생님께
졸업식 날 선물을 드려도 된다? O

A. 동생이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라면
해당 학부모와 교사간에는 통상적으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나,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은 10만원) 이하의 선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첫째아이의 담임교사가 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담임교사나 교과목 담당교사인 경우에는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허용될 수 없습니다.